

분초사회 시나리오 “쫓기다”

기획의도

분초사회란 시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사회로,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초(分秒)를 다투며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누군가가 강요한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지만 1분1초가 아까워 쫓기듯이 시간을 따지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로그라인

누군가 나를 쫓아온다.

등장인물

시연 (25세), 민호 (25세)

S#1. 시연의 집, IN, D

나갈 준비를 마친 시연이 거울을 여유롭게 보고 있다. 그 순간 시연은 뒤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뒷쪽에 위치한 현관 쪽을 휩 쳐다본다. 불안해진 시연은 현관문 앞에서 문고리를 꼭 움켜쥐다. 현관을 활짝 열은 시연. 문 앞에는 아무도 없다. 시연은 불안한지 걸음을 빨리하여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여러번 누른다.

S#2. 높은 건물들이 보이는 거리, OUT, D

걸음을 빠르게 옮긴 시연이 높은 건물들이 보이는 곳 아래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시연은 힐끔힐끔 뒤를 쳐다보고는 발걸음을 더 빨리 움직인다.

S#3. 골목길, OUT, D

번쩍이는 도심에서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긴 시연. 골목길에 들어서자 더욱 불안해진 듯 발을 더 바빠 움직인다. 급하게 걸어가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놓치고 만다. 가방을 놓치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온다. 시연이 급하게 물건을 줍는 동시에 시연의 뒤로 의문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불안해진 시연은 물건들을 마저 가방에 집어 넣고는 다시 뛰어나가기 시작한다.

S#4. 강의실 안, IN, D

강의실 안. 시연은 책상에 앉아 발표를 준비한다. 곧이어 발표를 하기 위해 일어나 앞으로 나간 시연. 발표 자료를 만지는 시연이 손이 덜덜 떨린다. 불안한듯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다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한다.

시연 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내 발표를 무사히 마친 시연. 하지만 시연의 뒤로 또 다시 의문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그림자를 본 순간 시연은 정신없이 강의실을 뛰쳐나간다.

S#5. 카페 안, IN, D

정신없이 뛰어가던 것을 멈춘 뒤 민호가 근처 카페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근처 카페로 가는 시연. 카페에 들어와 먼저 와있던 민호에게 인사를 하며 앞자리에 앉는다. 평화롭게 얘기를 하던 중 시연의 뒤로 검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난다. 또 다른 오싹함을 느낀 시연은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 거린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에게 인사를 고한 뒤 재빨리 카페를 나선다.

S#6. 한적한 골목길, OUT, D

시연은 자신을 누군가가 확실하게 쫓아온다는 것을 느낀다. 무서움을 느낀 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 오는지 확인한다. 어두운 골목길을 벗어나기 위해 또 다시 뛰기 시작하는 시연

S#7. 길거리, OUT, D

사람이 하나둘씩 보이는 길거리에 들어서서 시연. 위태 위태하게 발걸음을 옮기다 결국 넘어 지고 만다. 그녀의 뒤로 다시 한번 드리우는 낮선 이의 그림자. 시연이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린다. 그녀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진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다른 아닌 시계였다. 주변 사람들이 시연을 힐끔힐끔 쳐다본다. 시연은 허망한 표정으로 시계를 쳐다본다.

나레이션 : 시간은 당신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에 쫓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